

## 송인서의 『칠극보감七克寶鑑』 목차를 통해본 기독교 윤리의 변용 흔적\*

오지석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송인서의 『칠극보감』의 성격

1. 송인서宋隣瑞(1867~1930?), 그는 누구인가?
2. 『칠극보감』은 어떤 책인가?

### III. 한국 기독교윤리의 변용 흔적으로서의 『칠극보감』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2>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6A3A01042723)).

---

• ABSTRACT •

---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in “*Chilgeukbobogam*(七克寶鑑)”  
of Song In-seo(宋隣瑞)- Finding the Trace of Metamorphosis of Korean  
Christian Ethics

Prof., Oh, Jie-Seok (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find traces of transformation of Korean Christian ethics, focusing on narrative and ethics in the church, a community of Christians, in which the metamorphosis of culture is well represented in the Korean modern transformation space. What we pay attention to here is Pastor In-seo Song, one of the first seven pasto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and the text that he left behind, *Chilgeukbobogam* projected the life of Pastor Song In-seo, who lived in the modern transition space,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is is simply a Korean version of the translation of Pantoja's *Chilgeuk*(七克, *The Seven Victories*) or is one of the narratives of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answering this question, he attempts to establish “*Chicheukbogam*” as a narrative ethical text and reveals its validity. Thus, this paper traces of transformation of Korean Christian ethics in narrative ethics as the basic text of Seohak(西學) ethics, *Chilgeuk*, was translated and translated by Song In-seo.

**Key words:** Song In-seo, Modern Transformation Space, Metamorphosis, *Chilgeukbobogam*, Narrative ethics, Korean Christian Ethics, *Chilgeuk*

---

##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기독교의 현실이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스스로의 답이 무척이나 부족하고, 덕의 내면화 내지 성품화性品化가 절실한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품의 함양이라는 시각에서 내러티브와 성품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통하는 요소들 이외에 독특하고도 고유한 정체성<sup>2)</sup>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내러티브 윤리 혹은 덕 윤리의 수용에서 덕의 왜곡을 유의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그럴 때 기독교가 추구하는 덕의 성품화와 유교의 성인군자의 덕목이 동일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동음이의어와 같아서 민감하지 않으면 잘 구별하기 쉽지 않다. 전통적 가치와 서양에서 전해진 낯선 가치가 충돌하던 근대전환기에 전통적인 유교적 덕과 기독교의 덕이 수시로 씨줄과 날줄로 엮여질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기독교는 근대전환기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미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독교공동체는 천정환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의 삼문출판사, 예수교서회 등의 등장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파급력이 강하며 현재적 변화의 기원이 된 문화변동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sup>3)</sup> 1880년대 서양식 연활자가 도입되고, 거둬하여 활자매체 제작기술이 개량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sup>4)</sup>에 따라 더 이상 소수 엘리트 계층에게

1) 문시영,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4 (2019), 223~250.

2) 위의 글, 241.

3)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서울, 푸른역사, 2003), 25.

만 허락되었던 누구나 글을 읽고 글로 써서 의사소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시 말해 책 읽기와 독자의 탄생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독자는 실제로 책을 읽고 그것에 반응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동시에 집합적인 사회적 실체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홀로 텍스트를 대면하여 책 속의 세계를 해석하고 전유하는 주관적이며 정신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사회적 행위이다.<sup>5)</sup> 독자는 책 읽기 과정, 즉 수용은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겪는다. 첫째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둘째 책을 읽어가는 해석, 해독의 과정, 셋째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sup>6)</sup>

한국기독교는 초기부터 독자를 확보한 공동체였고, 함께 읽을 내러티브 생산에 힘을 쏟았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송인서宋隣瑞 목사가 1918년 역술한 『칠극보감』이다. 『칠극보감』은 17세기 예수회 선교사 뻬또하 Didace De Pantoja(1571~1618, 龐迪我 字-順陽)가 쓴 『칠극』<sup>7)</sup>을 저본으로 20세기 프로테스탄트 공동체가 읽고 실천할 수 있게 역술하고 발췌 정리한 책이다. 이제 송인서의 『칠극보감』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 공동체

4) 박천홍, 『활자와 근대-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서울, 너머북스, 2018), 10.

5)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46.

이러한 현상은 마펫의 1899년 10월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곳(숙천군)에서도 군수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가 평양 서점에서 구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지역에서 유명한 많은 유학자들이 방문했고, 그중 일부는 저녁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식자층 사이에 구도의 정신이 성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학문적으로 열등한 기독교인들이 지식과 지적인 획득에서 양반층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음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2』, (서울: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 연구소, 2017), 703.]

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47.

7) 『칠극』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승혜, “『칠극』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9 (1994) 등이 있다.

의 기독교윤리 이해와 변용의 흔적을 찾아보자.

## II. 송인서의 『칠극보감』의 성격

예수회 신부 뺨또하가 1614년 북경에서 지은 『七克칠극』은 17세기부터 조선에 들어와 사대부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영조 때 사도세자가 대궐 안에 까지 읽었다.<sup>8)</sup> 그리고 1801년 천주교 신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서학서들을 기록한 「요화사학소화기妖書邪書燒火記」에서도 『칠극』이 등장한다.

『칠극』은 조선 후기에 유입된 후 네 차례 한글로 번역되었다. 구한말 김덕민金德敏이 인항성당에서 한글로 낸 것과 그 요약본, 1918년 장로교 목사인 송인서가 평양에서 번안 발췌한 『칠극보감』 그리고 1857년 홍콩 나자로 수도원에서 상하 두 권으로 펴낸 『칠극진훈』을 1996년 박완식과 김진소가 공역하여 전주대학교출판부에서 펴낸 『칠극-일곱 가지 승리의 길』, 박유리가 1998년 일조각에서 펴낸 『칠극-그리스도교와 신유학의 초기 접촉에서 형성된 수양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9)</sup>

8) '정민의 다산독본 - 대궐 안에 일찍이 침투한 천주교.. 사도세자도 『성경직해』 읽었다.' 『한국일보』 2018년 10월 25일자, 28면.

정민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나역사회모본支那歷史繪模本』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세자의 문집인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 권6에 '화첩제어書帖題語'와 '후제後題'라 실려 있다.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의 '소서'에는 자신이 본 소설책의 목록을 '대조목大條目'과 '소조목小條目', '대중소질大中小秩'과 '음담괴설淫談怪說' 등 모두 네 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이 중 '소조목'에 속한 책 이름 가운데 『성경직해聖經直解』와 『칠극七克』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제기의 『놀암기략納庵記略』, 『사학중의邪學懲義』 부附 「요화사학소화기妖書邪書燒火記」의 예에서도 『칠극』 관련된 기사가 전해진다. 또한 『칠극』의 조선 전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최종복은 2015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요화사서소화기에 기록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에서 『칠극』의 소개자로 허균을, 소개시기를 1615년으로 삼고 있다. 이제기의 『놀암기략』의 내용 중 "광해군 때 허균이 『칠극』을 구입하여 왔다."는 구절을 이용한다.

9) 박유리, 「책머리에」, 뺨또하, 『七克-그리스도교와 신유학의 초기 접촉에서 형성된 수양

『칠극』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송인서가 역술한 『칠극보감』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송인서에 대한 연구 또한 1907년 9월 17일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안수를 함께 받은 한석진, 길선주, 이기풍, 양전백, 방기창과는 달리 단편적이다.

### 1. 송인서宋隣瑞(1867~1930?), 그는 누구인가?



(송인서)<sup>10)</sup>



(장로교 최초 7인의 목사)<sup>11)</sup>

송인서는 한국 장로교의 최초 7인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1867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학漢學(舊學)을 공부하였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유랑하며 불교와 도교에 빠져 있다가 1891년 사무엘 마펏(마포삼열) 선교사와 그의 조사 한석진韓錫晉의 인도로 기독교로 귀의하였다. 그 후 마펏과 인연은 계속되었다. 1893년 황해도 재령군 신환포교회에서 마펏을 도우며 전도활동을 하였고, 1894년 평양의 첫 기독교인 박해사건<sup>12)</sup>에 연루되어 한석진, 김창식과 더불어 평양 감영

론』(서울: 일조각, 1998), iv.; 이훈상, “번역후기”, 뽀또하, 『七克-그리스도교와 신유학의 초기 접촉에서 형성된 수양론』, 473;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1(2011), 212 1890년대의 한국인 저작으로 홍정후의 『칠득七得』이 있는데 판또하의 『칠극』을 옆두에 둔 변증서로 추정하고 있다 (<http://ihappy99.com/main/chhtry/roottxt18.html>).

10) 사진 출처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4661626031> 2020.07.13.

11)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cuidaifan33/100169643068> 2020.07.13.

12) 마펏은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November, 1895), 831-837 “The Work of

에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와 1895년 마펫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조사가 되었다. 마펫의 추천으로 1902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입학하였다.<sup>13)</sup> 그는 신앙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 1892년 평안남도 평원군 한천교회<sup>14)</sup>, 1894년 평원군 명당동교회, 용강군 준본리 교회, 1896년 주천교회, 1898년 강동군 설파교회, 강동읍 대원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학수업을 이수하는 중에는 평원의 한천교회에서 교역을 하였고, 1907년 초에는 동교회서 장로 장립을 받았다. 1907년 6월

the Spirit in North Korea”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2』 (서울: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 2017), 762~765.

옥성득,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짓다, 2016).

옥성득은 “3부 서북 지방으로” 33. 평양의 첫 기독교인 박해, 김창식의 신앙고백(1894년 5월)’에서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역사 사건으로 등장시킨다.

- 13) 마펫은 *Korea Field* (November, 1903)에서 1903년 6월 신학반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공의회가 4명의 목사 후보생을 추가로 우리 관리 하에 두도록 허가해준 후에,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신학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 6명 중 4명은 안수 받은 장로입니다. 모두 이전에 교사, 조사 또는 조력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6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 한문 문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도록 해주는 한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 이들은 안수 받을 첫 번째 목회자가 될 것이므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송인서 조사는 34세로 1894년 박해 때 기도회에서 구타를 당한 후 기독교이라고 선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895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골의 한 미조직교회의 영수로, 교사였고 4년 동안 황해도 중심 지역의 발전에 주된 견인차 역할을 하며 헌트 목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3』 (서울: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 2017, 927~929.)

- 14) 마펫은 1895년 10월 평양선교지부 보고서에서 한천교회를 소개하면서 송인서의 활약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그곳은 우리 학습교인 송인서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1년 넘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고 수시로 많은 책을 배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비록 그가 간곡히 권유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 그를 조롱했고 약 1년 전에 그가 내게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봄에는 그곳에서 한 구도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옥성득 책임편집, 『마포삼열 자료집 2』, 611.)

한천교회와 송인서의 활약에 대해 1896년 10월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데 송인서가 영수로 활동하고 있다.

2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식을 하였다. 졸업생은 7인이었는데 의주 한석진(41세)·서경조(58세) 귀성 양전백(39세), 평양 길선주(40세)·방기창(58세)·이기풍(40세), 송인서(40세) 등이었다.<sup>15)</sup> 이들의 목사 장립은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행되었다. 이들은 한국 교회 최초의 목사7인이다. 송인서는 증산, 한천, 외서장, 영유, 허리마을교회의 전도목사로 취임했다.<sup>16)</sup> 마췌트는 1907년 2월 14일에 쓴 “한국에 있어서 교육 받은 교역자들”라는 글에서 송인서의 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자.

송인서는 1895년 내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1894년 민병석 감사의 박해 사건에 투옥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나왔으나 조금도 변함없이 널다리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의 인격과 신앙이 타에 모범이 되므로 1902년에 신학생으로 추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수년간 평양 서북부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앞으로도 그 지역의 지도자 및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다.<sup>17)</sup>

송인서 1907년 조직된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개회사를 맡았고 초대 임원 부서기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1909년 제3회 독노회에서 서는 스왈른 선교사의 동역목회자로 활동하였다. 1912년 각 노회가 성립된 이후 평남노회 소속 목사로 평남 서부지역의 전도와 교세확장에 힘을 쏟았으며 1916년까지 평남 진남포시에 거주하며 진남포 역양기 교회를

15) 채필근 편저, 『한국기독교개척자 한석진목사와 그 시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119.

16) 채필근, 같은 책, 134.

17)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편, 『馬布三悅博士傳記』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3), 234~235.



시무하였다가 신병으로 인해 잠시 휴직하였는데 이때 『칠극보감』을 역술하고 1918년 2월 5일 발행한다. 『칠극』 판권기에 나오는 역술자의 주소는 진남포부 억량기리 십이통 칠호(鎭南浦府億兩機里十二統七戶)되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발행소를 평양부 경창리 칠번지(平壤府景昌里七番地)자신의 자택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그가 신병치료를 하면서 지내는 기간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1921년 복직하였고, 평남노회가 1922년 분립될 때 평서노회 노회장으로 평남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926년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휴직한 후 1929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독교공보』 2010년 4월 15일 특집 “장로교초대목사의 리더십을 말한다 -송인서 목사”<sup>18)</sup>에서 영남신대 영남교회사학회는 송인서 목사의 목회지도력을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구도자적 열정의 지도력 둘째, 신앙공동체를 중시한 지도력 셋째, 민생을 중시한 섬김의 지도력이다. 여기에서 송인서가 신병 치료 중에도 왜 『칠극』을 선택하여 초기한국교회공동체에 맞게 역술했는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2. 『칠극보감』은 어떤 책인가?

현재 송인서의 『칠극보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귀중자료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역사관(전시실) 등이다.<sup>19)</sup> 이 연구의 저본은 숭실대학교

18) ‘이전 것은 모두 죽을 공부였다,’ 『기독교공보』 2010년 04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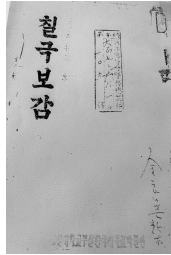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4661626031> 2020.07.13.

19) 『칠극보감』의 소장하거나 전시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바로 잡으려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본은 저자를 소개하는 스크랜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역술자 송인서로 정정해야 하고 『국민일보』 2017년 4월 3일자 기사 ‘예장합동역사관, 두루마리 토라·칼뱅의 ‘기독교 강요’등 눈길-총회설립 105년 만에 세운 예장합동 역사관을 가다에서 칠극보감七克寶鑑을 소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극복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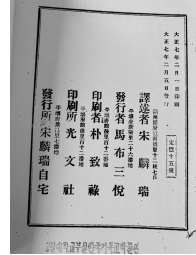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이다.



(표지)20)



(총독부 납본표지)21)



(판권지)22)

숭실대 소장본 『칠극보감』(유물번호 IA0161)<sup>23)</sup>은 상하권으로 되어 있고, (IA0162)은 하권만 있다. 『칠극보감』(유물번호 IA0161)을 중심으로 책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겉표지의 특징은 김양선 목사의 소장본이라는 것과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에 납본 번호(130)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한제국기 통감부이후 판권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는 데 이 책에는 없다. 서문은 한문서문(七克寶鑑序文)과 한글서문(칠극보감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서문이 일치하지 않아 송인서의 단순한 번역이라기보다는 발췌 번안역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일곱 가지를 논한 마펫 선교사의 칠극보감七克寶鑑이라고 한 것 또한 판권지를 자세히 읽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이다. 판권지에는 馬布三悅(마펫)은 발행자로 되어 있다. 역술자를 정정해야 한다.

- 2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해제』(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199.
- 2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사진 제공.
- 2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사진 제공.
- 23)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저자는 裨叻哈龐迪我, 역술자는 송인서宋隣瑞이고, 발행자는 마포삼열馬布三悅, 인쇄소는 광문사光文社 발행일은 1918년 2월 15일, 2월 5일로 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역술자의 주소와 발행소의 주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역술자 주소는 진남포 억양리 교회의 주소이고 발행소는 평양의 자택이다. 책값은 정가 15전이다. 이 책은 한글 세로 내려쓰기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18.7×13.0이다.

다. 『칠극보감』의 상권은 7권 중 4권(91쪽)이고 각권의 제목은 ‘데일권 교만들의론흙(驕慢을論흙), 데이권탐린들의론흙(論貪吝), 데삼권음란들의론흙(論淫亂), 데스권 분노들의론흙(論忿怒)’이다. 하권은 7권 중 나머지 3권(55쪽)으로 ‘데오권탐식들의론흙(論貪食), 데륙권 질투들의론흙(論嫉妬), 데칠권 헨타들의론흙(論懈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극』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김승혜와 금장태, 조광, 오지석의 평가에서 『칠극보감』의 성격을 유추해보자.

김승혜는 뻘또하가 『칠극』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권 윤리부분 칠죄종七罪宗(seven capital sins)과 칠추덕七樞德(seven cardinal virtues)의 개념을 ‘극기克己’라는 한 주제에 맞추고 유교적 용어로 사용하고, 성서와 성인전, 그리스·로마의 철학 및 대중적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어서 유학자들이 그리스도교적 수양론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고 평가한다.<sup>24)</sup> 금장태는 “天學初函(理篇)해제”에서 뻘또하의 『칠극』을 일곱 가지의 죄(교오驕傲, 질투嫉妬, 간린慳恪, 분노忿怒, 미음식迷飲食, 미색迷色, 헨타우선懈惰于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서라고 하고 있다. 또한 조광은 『칠극』은 인간중심의 윤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로 전환하는 데 공헌이 있다고 보았다. 오지석은 『칠극』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하여 『칠극』에 대해 “유교에서 강조하던 윤리관은 효제나 충신 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칠극』에서는 그 윤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그리하여 인간 내부에 적용되는 윤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25)</sup> 기술한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칠극보감』은 『칠극』의 칠추덕의 개념과 기독교 공동체의 내러티브와 그리스·로마의 철학 및 대중적 이야기를 담고 있

24) 김승혜, “『칠극』에 대한 연구,” 171~172.

25)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1 (2011), 212~213.

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윤리적 전통인 인간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로, 그리고 인간의 윤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성격을 근대전환공간에서 유학의 언어, 가톨릭의 용어가 아닌 프로테스탄트의 용어로 윤리 담론을 담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III. 한국 기독교윤리의 변용 흔적으로서의 『칠극보감』

송인서의 삶은 초기 한국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바로 세우려는 고민과 헌신이었다. 그 고민의 흔적이 『칠극보감』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칠극보감』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집필동기를 읽을 수 있다.

“종교덕생활하는자는남녀를물론하고극기입덕하는것을아무리중도에폐하기쉬우니그것을도를밧고씨듯기가어렵고형하고일일우고직히는것들이라 (종교적 생활을 하는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극기 입덕하는 이 책을 알지 못하면 중도에 폐하기 쉬우니 이 책은 도를 밧고 깨닫고 행하고 이루고 직히는 것들이라<sup>26)</sup>)”

그는 17세기 가톨릭 공동체의 수양론 또는 성품, 덕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20세기 아직 어린 한국교회 공동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덕 이야기로 역술하였다. 그의 서문은 그것을 이야기한다.

아바지계신뵈흔뎡당에오르논길에엇지마귀의장이나세상의고초가업스리  
오덕에립지흔신여러형테즈미는이칠극보감을흔번시와극기흔시논디흔도음이  
되기를브라와셔학문의천단흙을도다보지아니하고역술흔옛스니부족흔곳을용  
납흔시고밧음에돕논것과직히는디힘이나게흔것을차차가지시기를원흔야두

26) 연구자의 현대어역임

어마디로칠극보감이엇더흔거신지조고마침설명흔느이다<sup>27)</sup>

뻘또하의 「칠극자서七克自序」와 송인서의 「七克寶鑑序文」, 「칠극보감 서문」을 비교하면서 서학의 윤리가 어떻게 기독교윤리로 변용되는 지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한다.

뻘또하는 「칠극자서七克自序」를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모든 일은 없애고 쌓는 두 가지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몸을 닦는 모든 일이란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작한다.<sup>28)</sup> 또한 모든 악한 일은 욕망에서 나오는 데 욕망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 온갖 악이 그것을 뿌리로 삼는다하며,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일을 종일토록 논의하고 평생토록 힘쓰는데도 거만함, 질투, 분노, 같은 여러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겸손, 어짊, 끈음, 참음 등과 같은 덕이 쌓여지지 않는 까닭을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음에서 찾는다.<sup>29)</sup> 이 부분은 동아시아 윤리적 전통과 수양론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뻘또하는 이어 서학윤리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덕을 닦고 욕망을 이기려는 사람은 오직 그의 온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하느님(上帝)에게 향해야만 그 뜻이 높다고 할 것이다.<sup>30)</sup> ... 그래서 예수회의 가르침을 따라, 뛰어난 분들께서 환히 밝혀주신 가르침을 익히 듣고서 자신을 바로잡고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저 사악한 이야기들이 길을 가득히 메우고 있어서 하느님이 인간과 사물의 참된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

27) 뻘또하 지음, 송인서 역술, 『칠극보감』 (평양: 송인서 자택, 1918), 칠극보감서문 2.

28) 뻘또하, 『七克 칠극』, 13.

29) 같은 책, 14.

30) 같은 책, 15.

에 오를 수 있는 참된 지름길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련하게 여겼다. ... 사람의 마음의 병은 일곱 가지가 있고, 이것을 치료할 약 또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큰 뜻을 모아 보면, 결국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쌓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복을 쌓는 것이요, 없애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재앙을 없애는 것이다.<sup>31)</sup>

일조각에서 나온 『칠극』번역서에는 卍또하의 「칠극자서七克自序」 마지막 밑에 다음과 같이 칠죄종과 칠추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이는 송인서의 「七克寶鑑序文」의 내용과 유사하다.

천주교에서는 죄의 근본에 일곱 가지의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질투이고, 셋째는 인색함이고, 넷째는 분노이고, 다섯째는 마음이 먹고 마시는데 빠지는 것이고, 여섯째는 여색에 빠지는 것이고, 일곱째는 착한 일을 함에 게으른 것이다.

또 이 죄의 일곱 가지 실마리를 이겨내는 데는 일곱 가지의 덕이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겸양으로 교만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에게 어질게 대하고 남을 사랑하여 질투를 이겨내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을 버려 인색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넷째는 참고 견딤으로써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집착을 없앰으로써 먹고 마시는데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여섯째는 욕망을 끊어서 여색에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일곱째는 하느님(上帝)를 부지런히 섬겨서 착한 일을 함에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이다.<sup>32)</sup>

그렇다면 송인서의 「七克寶鑑序文」을 들여다보자.

---

31) 같은 책, 17.

32) 같은 책, 18.

(전략)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왔으니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직분은 근신행덕에 있으니 덕이라는 글자의 말뜻은 일곱 개의 단서가 있다. 첫째가 겸양謙讓이요, 둘째는 시재施財(제물을 베풀어요) 셋째는 정욕을 절제(節慾)하는 것이요, 넷째는 항상 참으며(恆忍), 다섯째는 맑고 깨끗함(淡潔)이요, 여섯째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仁愛)이요, 일곱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함(勤懇)이다. 이 일곱 실마리 마음을 참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늘 가슴에 품어 부지런히 게으름 피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도덕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는 뿌리이며, 사람의 도는 가지이니 다만 하늘을 공경하면서 덕이 없는 것은 가지 없는 뿌리와 같고, 일곱 가지 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역시 뿌리 없는 가지니라. 뿌리와 가지는 서로 신뢰하여 상처가 하나 없어야 뿌리가 단단하여 잎이 무성하며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 배우는 자는 어정거리며 몸과 마음이 완미하여 한 마디 한 마디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알아낸다함은 즉 좋지 않은 자가 스스로 도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인을 깨우쳐 이끌어도 그 자기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사람의 요긴한 일이다. (후략)<sup>33)</sup>

뻘또하의 자서와 송인서의 칠극보감서문에서는 일곱 가지의 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추구 해야할 덕을 유교적 덕과는 다른 지향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 기독교와 유교와의 만남, 덕 공동체를 지향해온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시영이 한국 기독교가 덕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행위(doing)보다 존재(being)에 주목하여서 성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경험을 통해 영적 각성은 교회의 부흥과 함

33) 뻘또하, 『칠극보감』, 칠극보감 서문 1. 필자의 번역.

34) 문시영, “건덕에서 덕 윤리로,” 『근대 사상의 수용과 변용 I』 (서울: 선인, 2019), 31.

게 도덕적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나타난 도덕적 변화와 실천의 모습들은 도덕적 금기사항(복음 이전의 옛 생활에 대한 청산 혹은 극복의 과제)과 도덕적 권장사항(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덕’)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35)</sup>

송인서의 『칠극보감』에서 1907년 이후 기독교공동체의 성장과 그에

	『칠극』	『칠극진훈』	『칠극보감』
1	복오伏傲 - 교만을 누르다	겸극오謙克傲 겸허한 마음으로 오만함을 극복하는 길	교만율의론함 (驕慢論論함)
2	평투平妬 - 질투를 가라앉히다	인극투仁克妬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길	탐린율의론함 (論貪吝)
3	해탐解貪 - 탐욕을 풀다	인극로忍克怒 인내심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길	음란율의론함 (論淫亂)
4	식분息忿 - 분노를 없애다	정극음貞克淫 순결로 음욕을 극복하는 길	탐식율의론함 (論貪食)
5	색도色度 -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다	사극린捨克吝 베푸는 마음으로 인색함을 극복하는 길	탐식율의론함 (論貪食)
6	방음坊淫 - 음란함을 막다	담극도淡克饜 담박한 생활로 탐욕을 극복하는 길	질투률의론함 (論疾妬)
7	책태策怠 - 게으름을 채찍질하다	근극태勤克怠 근면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	히타률의론함 (論懈惰)

35) 문시영, 『근대 사상의 수용과 변용 I』, 23.



따른 윤리적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송인서는 『칠극보감』에서 뿐만아니라 『칠극』과 『칠극진훈』과는 다른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의 한국인 또는 한국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다시 말해 근대전환공간에서 절실했던 개인의 수양, 기독교인의 덕목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권의 차례이다. 17세기의 『칠극』, 19세기의 『칠극진훈』, 20세기의 『칠극보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만과 게으름에 관한 것은 같은 위치에 있고, 『칠극』과 『칠극보감』에서 다섯 번째는 탐식이다.

이것을 봤을 때 송인서의 『칠극보감』이 뿐만아니라 『칠극』, 또는 『칠극진훈』을 단순히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한국기독교 또는 한국기독교공동체의 절박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발췌 번안 역술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36)</sup> 왜냐하면 번역은 원문에 대한 해석이자 세상을 보는 다른 창이기 때문이다.<sup>37)</sup>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동기나 바깥으로부터의 문화가 격심하게 몰려올 때 배경과 형태를 바꾸는 번안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38)</sup>

특히 2권 탐린을 의론함<sup>39)</sup>과 3권 음란을 의론함<sup>40)</sup>이 『칠극』이나 『칠

36) 신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리에 따라 7죄중의 순서를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으로 삼고 자신의 7죄론을 전개하고 있다.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IVP, 2012), 11.

37) 백옥인, 『번안 사회-제국과 식민지의 번안이 만든 근대의 제도, 일상,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2018), 40.

38) 백옥인, 『번안 사회』, 10.

39) 제2권 ‘탐린을 의론함’은 제1장 탐심을 풀어 헤칠 것(탐심을푸러헤칠것), 제2장 재물은 마땅히 구제품으로 알아야 할 것(지물은맛당히구제품으로알아야할것), 제3장 황금은 사람을 안정케 못하고 요란케 한다함(황금은사람을안정케못하고요란케한다함) 제4장 구제(구제) 등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40) 제3권 “음란을 의론함”은 제1장 간음을 막을 것(간음을막을것-음심은넘치느물과갓흐니방축을든드히호야 막으더경결(貞潔)노홀것), 제2장 真正 訂正이 큰 덕을 이룸(명정

극진훈』보다 앞서 배치된 것은 당시의 구제救濟의 문제와 교회를 다니면서 도 해결되지 않은 축첩제<sup>41)</sup>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제시라 할 수 있다.

송인서는 “3권 음란의 논의함”에서 乾南坤女이라하여 남녀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一夫一女은 인류의 도리라며 기독교의 일부일처제와 정절의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뽀또하가 바울의 성도덕과 서양 기독교 전통의 일부일처제를 다루고 있는 ‘결혼의 바른 뜻(婚娶正議)’가 제외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은 단순히 발췌번역의 한계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선교 30년이 지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혼인론과 성도덕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기독교인들은 기독교와 유교의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상호 침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 흔적이 『칠극보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칠극보감』에서 공동체의 내러티브를 통해 교회공동체다음의 수양론과 제자도에 기초한 덕의 성품화를 시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한정된 기독교담론을 공동체와 개인의 덕 서로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덕 윤리 실천에 관심을 가질 때 개인의 차원이나 계도화된 기독교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인서의 『칠극보감』의 목차와 뽀또하의 『칠극』의 목차 배열을 보면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기독교윤리의 변용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큰덕을일음), 제3장 음심을 소멸케 하는 데는 고운 태도를 엄금함(음심을소멸케하는 데는고운태도를엄금함), 4장 음란의 길을 미리 막을 것(음란의길을미리막을 것)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초기한국교회공동체는 중혼의 문제, 특히 축첩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선교사 스왈룬과 베어드는 이 문제를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7, 8, 9월호에 걸쳐 다루고 있다.

#### IV. 나오는 말

이 연구는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송인서의 『칠극보감』을 한국기독교공동체의 내러티브 윤리학의 자료로 이해하고 그 특징을 발견하였다. 그 이해는 한국의 근대전환기의 한 특징을 활자 문화를 통한 인쇄와 독자의 탄생에서 찾은 것이다. 즉 독자의 탄생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근대적 의미의 독자와 책 읽기 그리고 내러티브가 양성되는 산실의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의 책 읽기는 단순히 듣는 신앙을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송인서는 마포삼열(마펫) 선교사의 전도와 훗날 동료 목사로 일한 한석진의 인도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학생으로 추천 받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로 장립받아 목회자로서 활동하면서 거의 말년에 서학 윤리서로 알려진 뽀또하의 『칠극』을 역술한 『칠극보감』을 한국기독교 공동체에 내놓았다. 『칠극보감』은 1907년 대부흥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기독교에게 진정한 기독교인, 교인다움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리서로 접근하기보다는 동서양의 만남이 있는 『칠극』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덕 윤리를 소개하고 교회 공동체의 독서를 통해 이뤄나가기로 의도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뽀또하가 지은 『칠극』은 조선 후기 조선지식인들과 천주교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극기와 영성수련, 실천에 영향을 주어 구 한말 한글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현전하지는 않지만 홍정후가 1895년 『칠극』에 대한 변증서로 지었다는 『칠득』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장로교 목사인 송인서가 『칠극보감』의 저본을 무엇으로 하였는지 알 수

는 없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칠극』을 발췌 역술한 것이고, 상하권 체제로 한 것은 『칠극진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송인서의 『칠극보감』에서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담론의 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서양 기독교윤리사상의 수용과 변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뻘또하의 『칠극』과 송인서의 『칠극보감』의 7추덕에 대한 개별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김승혜, “『칠극』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9(1994), 177-190.
- 노고수, 『韓國基督教書誌研究』. 부산: 예술문화사, 1981.
-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편, 『麻布三悅博士傳記』.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3.
-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하우어위스의 교회윤리 연구』. 서울: 북코리아, 2013.
- \_\_\_\_\_.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223-250.
- 박천홍, 『활자와 근대-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서울: 너머북스, 2018.
- 백옥인, 『번안 사회-계급과 식민지의 번안이 만든 근대의 제도, 일상,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2018.
- 뽀또하, 『칠극』. 박유리 역. 서울: 일조각, 1998.
- \_\_\_\_\_. 『칠극-일곱 가지 승리의 길』. 박완식·김진호 역.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 \_\_\_\_\_. 『칠극보감』. 송인서 역술. 평양: 송인서 자택, 1918.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해제』.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IVP, 2012.
-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1(2011), 199-227.
- \_\_\_\_\_. “서양선교사를 통해 이식된 기독교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271-303.
- 옥성득,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짓다, 2016.
-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2』. 서울: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 2017.
-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3』. 서울: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 2017.
-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활자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서울: 책세상, 2010.

- 정 민. '정민의 다산독본 - 대궐 안에 일찍이 침투한 천주교... 사도세자도 '성경직 해' 읽었다,' 『한국일보』 2018년 10월 25일자, 28면.
- 조 광. '하느님 중심의 새로운 윤리관-칠극 (七克)-,' 『경향잡지』 1993년 5월호, 76-79.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사기편찬위원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개정판.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근대문학』. 서울: 푸른역사, 2003.
-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牧師와 그 時代』.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요화사서소화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한명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근대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한명근 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 선인, 2019.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4661626031> 2020.07.13.

<https://blog.naver.com/cuidaifan33/100169643068> 2020.07.13.

<http://ihappy99.com/main/chhtry/roottxt18.html>, 2020.07.13.

논문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이 글은 근대전환공간에서 활동한 송인서의 『칠극보감』에서 기독교윤리의 수용과 변용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공동체의 내러티브이다. 이 연구는 한국근대전환공간에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현상이 잘 드러나는 현장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속의 내러티브와 윤리에 초점을 두고 한국기독교윤리의 변용과 변형의 흔적을 찾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 최초 7인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송인서 목사와 그가 남긴 『칠극보감七克寶鑑』이다. 송인서 목사와 『칠극보감』에 관한 자료들은 빈약하다. 근대전환공간을 살아간 송인서 목사의 삶이 투영된 『칠극보감』은 이것이 단순히 뻔또하의 『칠극』의 프로테스탄트 버전의 한글번역본안서인가 아니면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내러티브인가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칠극보감』은 한국 기독교 초기 내러티브 텍스트로써 기독교공동체의 내러티브 윤리를 담고 있다. 이 글의 의의는 서학윤리의 기본 텍스트인 『칠극』이 장로교회 목사인 송인서에 의해 번역·번안되면서 보인 한국기독교윤리의 변형의 흔적을 내러티브 윤리학로 담고자 한 것에 있다.

**주제어:** 한국기독교윤리, 변용, 칠극보감, 송인서, 메타모포시스, 근대전환공간, 내러티브 윤리, 칠극

---